

I. 주간 경제 동향

1. 경제 개관

- (총괄) 무디스社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/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주가가 급등하였음
- (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) 무디스社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「긍정적 관찰 상태」로 놓는다고 발표. 이는 국제 금융시장 관례상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3개월 이내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
- (외환시장) 클린턴 탄핵 가결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와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의 여파로 1,190원대로 급락
- (외환보유액) 12월 15일 현재 가용외환보유액은 487.7억 달러이며, 연말에는 460~47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
- (주식시장) 조정국면속에 하락하던 주가가,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 회복으로 급등세로 반전
- (자금시장)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금리 인하 없이는 추가 하락이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으로, 거래 소강 상태 속에 상승세로 반전되어 회사채 수익률은 8%대로 재진입함
- (11월 중 어음부도율) 11월중 신설법인수가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. 이는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

□ 총괄

- (금융지표 급변) 하루 사이에 환율 1,200원대 붕괴, 주가 40 포인트 급등
 -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급락하고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냄
 - 금리는 기관투자자들이 연말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로 유동성 확보에 치중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
 -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시장의 기초 여건 개선 상태 지속
- (투자 심리 회복 가능성) 11월 신설법인수가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하는 등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

□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

- (한국 신용등급을 「긍정적 관찰 상태」로 변경)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社は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「긍정적 관찰 상태」로 놓는다고 밝혔음
 - 무디스는 18일(한국시간 19일) 현재 외화 표시 국채의 등급(국가 신용등급)은 Ba1, 은행 외화 예금은 Caa1인 한국의 신용등급을 긍정적 신용 관찰 상태 (Review for Possible Upgrade)로 변경한다고 밝혔음
 - 무디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IMF의 긴급 구제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으며, 환율 및 국내 금융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점 등이 감안된 것이라고 하였음
 - 아울러 무디스의 검토는 장기적인 경상수지 전망과 금융 산업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구조 개혁의 진전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알려졌다음
 - 한편 무디스는 서울시와 대구시의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도 긍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놓았음
 - 또한 국가 신용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행(현재 Ba2), 수출입은행(현재 Ba2), 기업은행(현재 Ba3) 등 3개 국책은행도 긍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려 놓았으며, 그밖에 현재 Caa1인 은행의 장기 외화 예금 등급도 긍정적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음
- (3개월 내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) 국제 금융시장 관례상 긍정적 검토 대상이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급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
 - 무디스社は 내년 1월에 심사단을 파견해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실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
 - 돌발 상황이 없는 한 긍정적 검토 대상이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적격 등급들 중에서 가장 낮은 Baa2 또는 Baa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

□ 외환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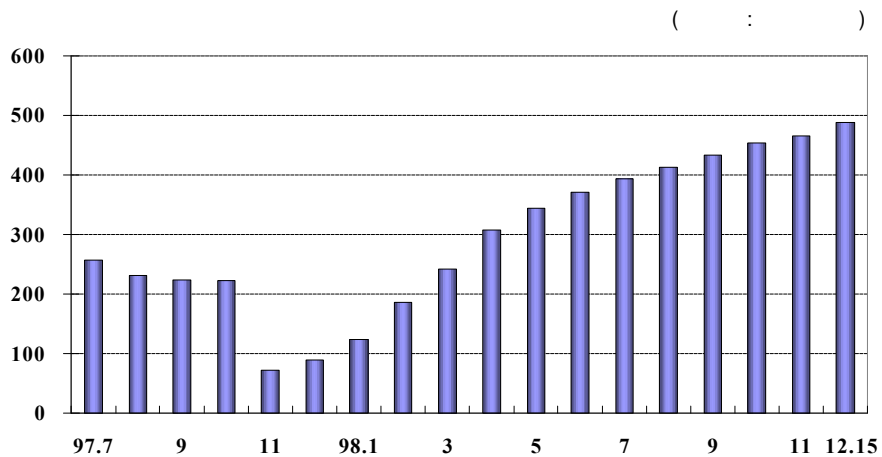
- (1,200원선 붕괴) 원/달러 환율이 1,190원 대로 하락
 - 12월 21일 현재 원/달러 환율은 1,193.0원을 기록

- 1,210원 내외에서 안정적이던 원/달러 환율이 5개월만에 1,190원대로 급락함
-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와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검토에 따라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됨
- 그러나 당국이 외화표시 부실채권을 23일까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추가 하락이 저지되었음

□ 12월 중 외환보유액 동향

- (외환보유액 증가 일로) 12월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523.0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국내은행 해외점포 예치금 등을 제외한 가용외환보유액은 487.7억 달러로 11월말에 비해 23억 증가
- 금융기관들이 긴급결제 부족지원자금 상환(지난해말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결제부족자금 232.9억 달러 중 187.8억 달러를 금년 중에 상환함에 따라 12월 15일 현재 잔액은 45.1억 달러로 감소),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하는 외화지준예치금 증가, 엔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美 달러화 평가액 확대,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, 지난 9일 포철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(DR) 매각자금 3억 달러의 한은 매입 등이 외환보유액 증가의 주원인임

<가용외환보유액 추이>



- (연말 가용외환보유액은 소폭 감소할 전망) 연말 가용외환보유고는 460억~470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

- (연말까지의 외환 수급) 18일부터 IMF의 SRF(긴급보완자금) 28억 달러의 상환이 시작되는 반면 지난 15일 인출이 승인된 IMF의 8차 지원금(10억 달러)이 유입될 예정
-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연말경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액 규모는 460~4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

- (1,200원선 회복 가능) 달러화에 대한 연말 특수 수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

- 성업공사의 외화부실채권 매입관련 수요 등 연말께 달러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,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1,200원선 회복도 가능함

□ 주식시장

- (주가 하락세 지속되다가 급등 조짐)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에 기인

- 12월 18일까지 주가 하락세 지속되어 500 포인트가 위협받음
-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클린턴 탄핵 우려, 이라크 사태 등 악재속에 폭락세로 반전. 특히 실물 경제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는데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여 조정 국면이 지속됨
- 그러나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되살아나 21일 하루 동안 주가가 40 포인트 이상 급등함
- 12월 21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565.27 포인트를 기록

□ 자금시장

- (지표 금리 소폭 상승) 회사채 수익률 8%대 회복

- 12월 21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8.10%를 기록함
-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금리가 인하되지 않고서는 추가 하락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, 거래 소강 상태 지속 속에 금리는 상승세로 반전되어 8%대로 재진입함
- 주중 콜금리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리 인하 의지에 대한 기대

- 가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세를 반전시키지 못함
- 특히 연말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로 기관투자가들이 유동성 확보에 치중함에 따라, 무디스社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라는 호재가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
- CD 및 CP 유통수익률은 7%대에 머무름

- (상승세 장기간 지속 가능성 미약) 상승폭도 크지 않을 듯

- 금리 상승을 저지하겠다는 당국의 태도가 강하기 때문임. 이는 여타 금리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콜금리가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확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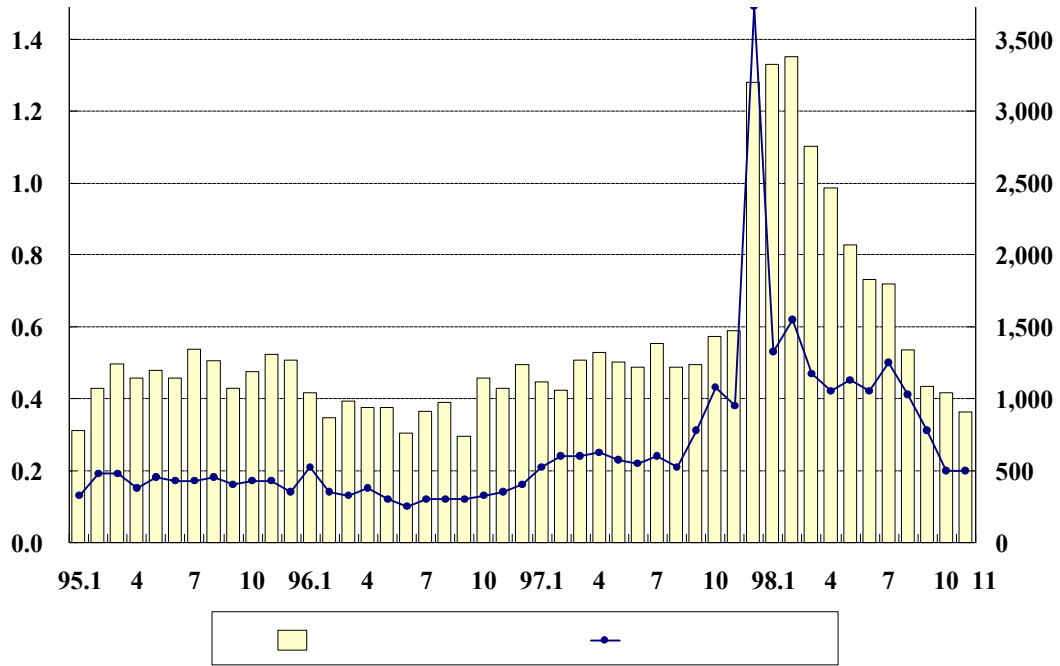
□ 11월 중 어음부도율

- (신설법인수 큰 폭 증가) 11월 중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같은 0.20%를 기록

-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어음부도율이 전월의 0.14%에서 0.16%로 소폭 상승한 반면, 지방은 전월의 0.76%에서 0.55%로 대폭 하락함
- 부도업체수(당좌거래 정지업체 기준)도 전월에 비해 133개가 줄어든 903개를 기록하여, 96년 9월(740개) 이후 처음으로 1,000개 미만을 기록
- 11월 중 7대 도시의 신설법인수는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. 전월(1,555개)보다 233개 증가한 1,798개를 기록
- 7대 도시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96년 8월(5.8배) 이후 가장 높은 5.6배로 상승

- (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조짐) 부도업체수 감소 및 신설법인수 증가는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< 최근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추이 >



(채 창 균 ckche@hri.co.kr ☎724-4031)